

##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얻은 기쁨

이 영 애

(본회 강원지부장, 원주CCC사랑의호스피스 실무책임자)

물과 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배는 뜨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배 위로 올라와 물이 차면 배는 파손하여 가라앉습니다.

목적지까지 향해하는데 필요했던 물이 과해서 넘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 돈이, 욕심이 물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원주기독병원에 입원중인 최태식 환우를 방문하였습니다. 칠십을 넘긴 최태식 님은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

다.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어서 유관 영양식을 하고 있는데 체중이 13kg이나 줄어서 지금은 53kg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관지 절개술까지 한 이후에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무용지물이 되었고 의사 소통은 글을 써서 하고 있으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체구가 작은 분이라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서인지 더 수척해 보여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로 평생 가족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신 아저씨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담배를 친구 삼아 지냈던 아저씨가 한 순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처음 우리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신앙에 대해 묻자, 주위사람을 따라 몇 번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웃으셨습니다.

3번째 아저씨를 방문하는 날, 집을 나서기 전 함께 나눌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병실을 찾아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임을 말씀드리는 순간 준비해간 누가복음의 말씀이 아닌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오면서, 아저씨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주님이 여기 와 계세요. 주님은 지금 아저씨 중심에 들어오셔서 아저씨의 고통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영접하시겠어요?」

기관지 절개 때문에 많이 불편한데도 또박또박 영접기도를 진지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고단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바

## 아동호스피스

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지요.

뒤돌아보면 때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이 일을 하면서 문득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사역이야말로 가치와 보람있는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무엇보다도 가정의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짐을 보면서 이 사역이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일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달곤 합니다.

더 많은 지체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제대로 섬겨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원주 CCC 사랑의 호스피스 동역자들과 함께 겸손함으로 묵묵히 이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

### ▶정정

51호 2면 송희완 목사님(본회 경상지부장)을 송희완 목사님(본회 이사, 부산지부장)으로 정정합니다. 본회 경상지부장은 장황호 목사님이십니다.

아동호스피스는 특히 아동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부모의 경우에도 아동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환아와 부모를 그 구성단위로 하여 적극적이고 또 필요 적절한 돌봄이 요구된다. 부모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환아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별한 후 죽은 아이의 영향이 부모의 죽는 날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 1. 아동호스피스의 정의와 목표

아동호스피스는 말기질환을 가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다양한 돌봄을 제공한다. 아동호스피스는 환아와 그 가족의 개별화된 신체적, 발달적, 정신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킨다. 아동호스피스의 목표는 환아와 그 가족을 구성단위로 하여 환아의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최대한 고취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환아와 그 가족이 호스피스가 제공하는 돌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 2. 아동호스피스의 대상

아동호스피스의 대상은 환아와 그 가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령 : 0세~18세

질환 : 말기질환(암, 선천성 기형,

신경계 질환, 심맥관계 질환, AIDS)

예후 : 약 1년 반 이내